



Metaphysical Theology

■ **실재성의 부여**

- 감각적인 세계에 대해 실재성을 부여하는 것이 곧 형상
- 형상들이 감각적 세계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
- 그러한 형상들이 이성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는 사실.
- 따라서 형상들은 결코 감각적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
- 이 양자 사이의 관계는 복사된 상태와 복사 원본에 대한 관계
- 감각적 세계를 형상들의 영상이나 반영이라고 부른다

Metaphysical Theology

■ **플라톤의 영혼론**

1. 영혼이란 운동의 원천.
2. 세계 영혼은 가시적 세계를 구체적 형태로 가지면서 지적인 능력으로 활동하는 피조물
3. 규칙적인 궤도로 운행 (광성과 흑성)
4. 이런 영혼은 불멸 → 신들
5. 인간의 영혼은 세계 영혼과 같은 비율과 원리로 장인에 의해 조형됨(지성 능력).
6. 따라서 '인간의 영혼' 과 '세계의 영혼'
 - 두 개의 세계
 -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불멸
 - 감각적 우주는 불을 지향

Metaphysical Theology

■ 영원성의 활동하는 영상으로서의 시간

- 천체들은 변화하지 않는 형상의 세계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하나의 복제
-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시간(과거, 현재, 미래)이 없었다.
- 아우구스티누스 수용
 - . 시간이 우주와 함께 창조되었다는 관점
 - . 천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현상으로서의 시간
 - . 마니교의 질문: “세계 창조 전에 신은 무엇을 하고”
 - 답변: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다.

Metaphysical Theology

“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하고
미래는 기대로서 존재하고
현재는 의식으로 존재한다.”

- 우리가 시간적인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기억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행위 하는 것
- 신에게는 만물이 현재적. 신 안에서는 소멸되는 것도 생성되는 것도 없다.

Metaphysical Theology

■ 선존재

- 선존재 개념
 - 복제의 원본으로서의 원형(형상)이 존재한다
- 창세기 적용
 - 혼돈상태에 질서 부여
 - 설계자는 창조적이어서 재료는 주어진 것이지만 도안을 창조해낸다.
 - 창조인가 모방인가?
- 형상을 신의 정신과 동일시함으로써 플라톤의 <티마이오스>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이용되도록 각색
- 이 우주는 형상의 세계에 대한 현실 반영이 아니라 신의 정신의 피조적 반영으로 해석

Metaphysical Theology

■ 지성의 각인

- 플라톤은 감각적 경험의 세계가 그 배후의 지성의 각인을 드러내고 있다고 확신 P. 54 reading
- 가시적 세계가 자연계의 사물을 산출함에 있어 인간의 정신과 유사하게도 이성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증.
자연계 사물들이 우주적 질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개별적인 기능들을 완수한다
→ 가시적 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유사성
→ 질서규정적 원리들이란 물질의 기능이 아니라 지성의 역할이라는 점 상기
- 항세기에서는 우선성의 확증
→ 시작된 적이 있는 만물과 대조적으로 신은 무시간

Metaphysical Theology

플라톤의 본향론

- 인간의 운명: 고단한 삶과 여행
- 진정한 고향 – 감각적인 현상계
비 감각적인 실재계
→ 양자의 동맹관계 → 복지(지복)
- 어거스틴의 고백록
- 비감각적 실재계를 상징할 수 없는 폐쇄성 극복

Metaphysical Theology

플라톤의 영혼론

- 그리스의 영혼론: 생명의 호흡, 숨결, 생명현상을 위한 생명성
- 호머: “지상의 빈자 > 죽은 자의 왕” (아킬레스)
- 오르페우스교: 지적, 도덕적 비증과 책임 부분 (x)
- 소크라테스: 운동의 원천
인격적 지성, 정신으로서 영혼
“너 자신을 알라”
- 덕(arête, 인간적 탁월성)
-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, Vs.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.

Metaphysical Theology

- **악행: 무지로부터 비롯**
- **플라톤의 구원관**
 - 인간의 삶은 무질서, 내란에 분열된 폐허 도시
 - 욕망의 추구가 인간의 노예화
 - 초기/중세 신학의 현세적 욕망에 대한 저주로 반영
 - 관능적인 삶을 추구하면 이 세계에 반복 출생
 - 지성에 의해 통제될 것
 - 진정한 실재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의 추구해야
 - 저급한 열정을 제어하는 유용한 인격
 - 영혼이 도시국가로 유추 → 사람들의 본분

Metaphysical Theology

- **국가**
 - 개인의 덕목/미덕 = 도시의 덕행
 - 개인의 영혼 = 도시의 축소판
 - 생산적 기능 = 필요와 욕구를 위한 상품(생산계급)
 - (영혼의 낮은 단계 욕망)
 - 보위자: 영혼의 중간부분
 - 통치자: 영혼 안내 지식을 지닌 개인의 이성
 - 영혼, 개인, 국가, 세계 영혼
 - 지혜: 이성적 정신과 통치자에게 요구
 - 용기: 명예를 추구하는 중간 부분의 영혼 균인
 - 절제: 욕망 조절의 덕, 생산자 계층
 - 정의: 각 부분에 가장 적절한 기능을 수행

Metaphysical Theology

- **선(善, 지고)**
 - 선의 형상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인은 소수(철인)
 - Plato의 지고의 입장 → 교육+소수(선천적이든 교육이든)
 - 기독교의 지고 → 지성적인 능력 (x)
 - 육신=말씀=계시=말씀
 - 유비를 통한 논증: 태양, 분리된 선, 동굴
 - . 빛/태양: 형상 세계에서의 풀 → 진리성 부여
 - 인식능력 부여
 - . 진리에 대한 지식은 인간을 미로 채운다
 - (진, 선, 미)
 - . 선은 본질은 아니지만 위엄성과 초월적 능력에서 본질을 초월한다.
 - **신이란, 만물이 그 존재성을 도출시킬 수 있는 선 자체**

Metaphysical Theology

■ **선은 지성에 통찰을 준다**

- “영원한 것에 대한 지식< 신성한 조명 필”
-어거스틴
- 영혼이 육화되기 전 알고있던 형상 (상기설, anamnesis)
- 신적 조명이 없다면
비감각적 세계가 감각들에 의해 알려질 수 없다.
→ 랍비의 성령 조명 비교
- 인식(론) -----본유 관념----->본질(론)
어거스틴-----계시, 조명----->천국/하나님 나라
- 데카르트의 ‘방법서설’
[무지/오류는 인간의 통찰력을 저해하는 습관/감각 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편견에서 주로 일어난다
→ 방해물들을 방법적으로 제거 -> 진리]

Metaphysical Theology

■ **두 세계**

- 감각의 세계
형상의 세계 - 사이의 관계
(가시적 세계와 지성적 세계) 불균등
- 가시적 세계의 끝으로부터 형상의 세계를 향하여
- 감각적이고 가시적인 세계
→ 현상들(phenomena)의 세계-가시적 세계
실재의(reality)의 세계-----지성 세계
- 이 세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진리성의 정도
→ 의견(doxa)
- <국가론>에서 감각을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
- 감각적 대상물들이 지성적 존재자들의 ‘영상’
※ p.88 도표 확인

Metaphysical Theology

■ **플라톤의 변증법**

-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다름
ex) 보편명제: ‘모든 A는 B이다’
지물질적 실재에 집중
- 물질적 대상에 그 속성과 특성들을 부여하는 원리
- 그러한 원리들이 의존하고 있는 바,
조직화/통합화 원리에 관한 지식 -----
-----> 지고의 지식이다
- ex) 천국은 어디에? 어떻게 이해?
성찬/ 주님의 살과 피는 어디에?
- 이러한 지식이 재육화되기(윤회)를 멈추고
그의 본향인 형상의 세계에 머물게 될 때
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충만성 --> 생애에 감지

Metaphysical Theology

- 통굴의 원리
- 1) 외부의 빛에 이르기 위해서는
매우 머나 먼 깊은 압축의 통굴 통과
→ 벽만 응시할 수 있는 가련한 상태
→ 이때 이들 중 하나의 사물이 풀려 불을 보게 됨
→ 아울러 조형의 모상을 보게 된다.
- 2) 그림자들로부터 빛으로의 전적인 방향
- 3) 눈이 만물을 볼 수 있다.
- 4) 이제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전환(conversion)
- 5) 지식은 영혼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
→ 이성의 영혼을 위한 양식
- * '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철학은 죽음의 연습' - <파이돈>

Metaphysical Theology

- 쾌락의 유혹에서 '죽어야'
- 가시적 세계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할
→ 한 조각의 환상에 불과
→ 비가시적 세계로 방향을 전환한 사람은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낮은 두 단계 욕망 제어
- 과연 영혼은 본질적으로 지성(nous)인가?
→ 지성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낮은 단계의 영혼은?
"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" (피타고라스, 플라톤)
- 감정과 욕망은 육체에 속하는 한 죽음을 넘어 존재 불가
→ 영혼이 잠시 육체와 결합해 있을 때 느끼는 것
→ 영혼은 세 가지 행위(지성, 감정, 욕망)를 지속한다

Metaphysical Theology

■ 영혼의 구성

- 정서적 감정과 욕망은 지성에 대해 종속적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비본질적
- 본질적이지 않은 외부의 사물들과의 접촉에서 감정적으로 느끼게 될 뿐
- <국가론>과 <파이드로스>에서의 영혼
→ 이성과 정신(nous)만이 아니라, 감정과 욕망/욕구까지 한 인격의 삶에서 역할
→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
※ 인간의 궁극적 운명을 성취해야 하는 삶의 과제를 위해 봉사적으로 종속
- 디오게네스의 독단적 금욕주의(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모멸감)보다는 목적론적

Metaphysical Theology

■ **혼돈 없는 연합(union without confusion)**

- 육체와 영혼(정신)의 관계에 대한 이해
- 칼케돈 공의회(451년)에서 채택된 바-
“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
참 사람으로 그의 신성과 인성은 혼란되지 않으며,
바꿀 수도 없고, 나눌 수도 없으며,
가를 수도 없다.
